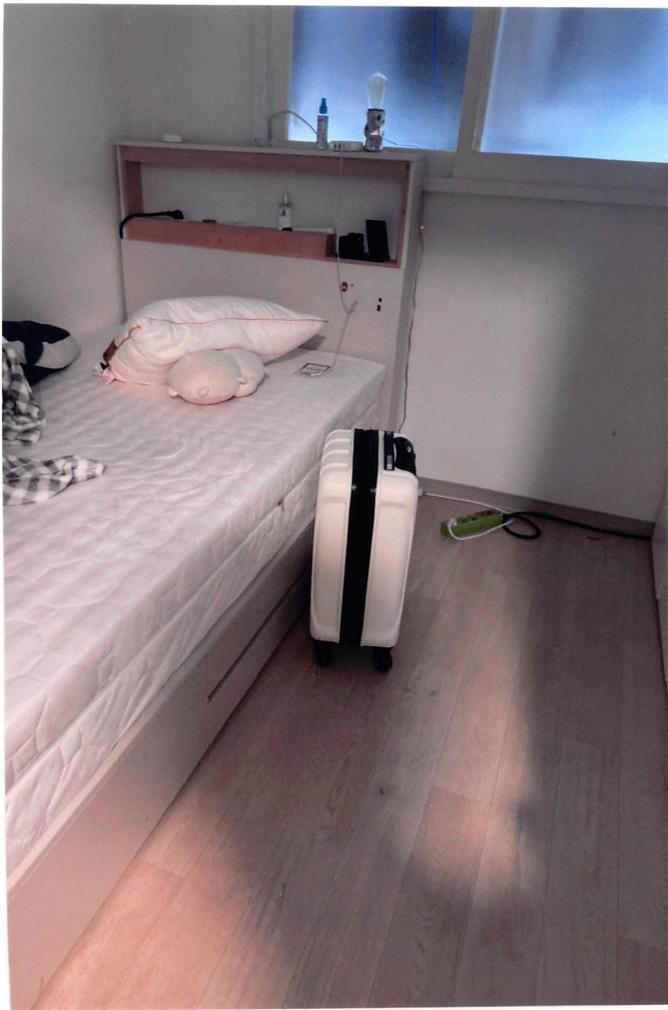


2026년 2월 6일 09:27

한동안 일기를 못 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저 일기를 쓰기 위한 재료가 근처에 없었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한 이유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요즘 SSRI를 중단했는데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아주 조금 생활이 활력이 생긴 것과 아주 약간의 리비도가 증가한 정도려나요? 그것 외에는 아주 약간더 화를 잘 내게 된 것 같고요

화 이야기를 하니 이번에 있었던 딸아이와의 일이 생각나네요. 한참 전에 딸아이가 일본에 다녀왔는데 그때 여행가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은 몇 개월째 딸아이 방에 둥글고 있더군요. 몇 차례 치우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 주에도 처가집으로 가기 전에 치우라고 한차례 더 이야기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더니 결국 다른 것은 다 치우련 이걸 귀찮으니까 안 치우고 처가집으로 드망갔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나서 집 정리를 하던 저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난 저는 딸아이 방의 모든 살림을 비닐봉지에 랩아버리고 이제 여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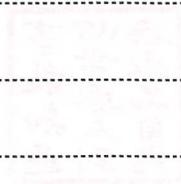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네요. 심지어 지난 화요일에는 학원이 끝나고 잠시 집에 들를 수 있었음에도 엄마에게 전화해서 나오게 한 후 사라졌습니다. 본격적으로 회피 전략을 쓰고 있는데 자기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 싫으니 그냥 회피하는 것이네요.

마침 이 일이 일어난 것이 2월의 첫날이었고 저도 깜박해서 용돈을 보내

주지 못했는데 그냥 안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같이 있는 시간이 적다고 해도 부모이고, 부모로서 생활습관에 대해 교정을 하라고 한 것인데 무시했으니 제가 제 지식으로서 필요할 때 쓰라고 주는 용돈을 굳이 큰 필요가 없으니깐요. 그냥 내버려 둬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하기만 하면 혼내지 못하게 끼어드는 아들도 짜증나고 말도 듣지 않는 딸아들도 짜증납니다.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저라고 마음대로 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저도 제 할 일만 하고 사는 것이요. 일기 쓰려고 다시 생각했더니 화가 나네요.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가족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겠지요.

요즘 전 맨날 돈이나 펄펄쓰며 살고 있습니다. 딱히 할 것도 없으니 신나게 지출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결제를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최근에는 그... 직장에서 사용할 교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UHF/VHF용 SWR 미터로 새로 샀고 RFI를 해결하기 위해 세르비아에서 BPF도 주문했습니다. 거기다 케이블도 두개 새로 만들었고요. 아참, 안정적인 출력을 위해 13.8V PSU도 주문했습니다. 이제 월요일에 이것 모두 도착하면 완성입니다. 그러면 테스트만 남게 됩니다. 제발 노이즈 없이 잘 작동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최악의 거래는 Tactical Radio Gear 라는 곳과의 거래였습니다. 개인 아마추어 무선사가 운영하는 곳인데, 결제 3주가 지나도록 아직 물건이 배송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40m, 2m BPF를 주문했는데 처음에는 날씨 문제로 부품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2m용 부품 수급 문제로 제품을 납품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필요하진 않지만 만든것이라도 보내라고 했습니다. 네. 이미 40m 제품은 다 만들었다고 해서요. 그랬더니 다음날 배송하고 차액도 환불해 주겠다고 하고는 이틀째 아무소식이 없습니다. 결국 다시 메일을 보냈는데 오늘밤(미국의 금요일 밤)에 보낸지 궁금하네요. 짜증이 납니다. 저도 여러모로 판매자 편의를 봐 줄 것인데 증계롭게 넘어가주니 우습게 보고있나 싶네요. 원래 거기 거래가 잘되면 여러 제품은 사줄 생각을 했는데 이전 완전히 정이 떨어졌습니다.



답장이 왔는데 또 내일 보내겠다네요. 홍수 피해가 발생해서 그렇다는데 정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이 끝나면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해볼까 합니다. 주식 시장은 며칠 전부터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기존 오피스 소프트웨어 다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와 "이제는 특정한 만큼 수익을 내는 회사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를 주장하며 주가 하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아는 얘기를 왜 침소봉대해서 떠드나 싶기는 한데, 그냥 돈을 빼고 싶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목적과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금융시장에서 전문가 라고 확실한 이유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어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꿀보다 해몽이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가진 한가지 걱정은 이 인공지능 하락기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와 어디까지 상승할지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비싸게 사는 것은 피하고 싶어서요. 지금도 싸게 샀다고 생각한 MSFT가 단독으로 -3,300 달러입니다. 그래도 전체 수익률은 한참 플러스이긴 하지만 이런 일은 피하고 싶네요.

일단 오후에 수술이나 하겠습니

